

True Peace

天國 10年
天曆 02
2022년 양력 3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의 장, 한반도 평화서밋

윤영호 세계본부장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보건, 복지 등 전 방위적인 분야에 심각한 피해와, “국가이기주의”에 기반한 자기 국가와 자기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풍조로 “화합”과 “상생”보다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정점에 달한 열강들의 패권다툼으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촉발된 다양한 문제들은, 동북아시아의 인접 지역들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친주평화연합의 공동창설자이신 한학자 총재님께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팽배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공생·공영·공의가 실현된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의 근본해법을, 인류의 근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모시고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이 실현될 때 가능함을 강조하시며, “하나님주의”에 기반한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의 비전을 주창하셨습니다. 특히 신통일세계의 선결조건인 신통일한국의 비전은, 7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분단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반도의 인간 중심 통일운동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적 통일론으로, 한민족의 뿌리되는 “경천애인”,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정신을 담은 “애천·애인·애국”의 평화사상을 근간으로 하며 “공생·공영·공의”의 실천이념을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가사처럼,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통일한국”이 될 때에만 통일한국은 항구적인 평화세계인 “통일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전 세대에 걸친, 세계적 지지와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 작년 2021년은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께서 한국전쟁 이후 분단된 남북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방북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해 한학자 총재께서는 세계평화정상연합,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세계평화경제인연합, 세계평화언론인연합, 세계평화학술인연합 등의 전 세계 20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인연대체인 싱크탱크 2022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탱크 2022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저명한 지도자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수상, 훈센 캄보디아 수상, 바로조 제1대 유럽집행위원장, 등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신통일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와,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국 국무장관과 마이크 펜스 제48대 미국 부통령,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 등을 초청해 “신통일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 종교, 외교, 안보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치열한 담론의 장인 싱크탱크 2022 포럼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들이 모여 대해를 이루듯 이러한 평화와 통일의 여정들을 통해, 그동안 인연된 수많은 정상급 지도자들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서밋”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공동수교국가 157개 국가의 지지와 참여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의 장, 한반도 평화서밋을 출발로 한학자 총재님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제2기 대북 프로젝트가 본격화, 가시화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ONTENTS



권두언

- 02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통합과 국제협력의 장, 한반도 평화서밋
윤영호 세계본부장

한반도 평화서밋 개회식 및 분과 세션

- 15 진실과 사랑의 무기
폴라 화이트 목사
- 16 대한민국의 위대한 업적
스티븐 하퍼 제22대 캐나다 총리
- 17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
몰라덴 이바니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 대통령
- 19 한반도를 향한 소원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 20 한국의 발전을 통해 배운 것
미세우 테메르 제37대 브라질 대통령
- 21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
김형석 전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 24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가 기적을 만든다
호세 마누엘 바로조 위원장
- 25 미래를 위한 백신 개발
사라 길버트 교수
- 26 저개발국 백신보급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다
세스 버클리 GAVI 최고경영자

참부모님 말씀

- 04 참된 왕터
평화경 제2편 5장
- 09 천일국의 자석이 되라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기념
천일국 경배기념식
- 10 하늘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진정한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나자
2022 한반도 평화서밋 특별연설 말씀
- 13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자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9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서밋 축승회

- 28 평화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훈센 캄보디아 수상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서밋

- 31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하여
반기문 공동 조직위원장
- 33 힘은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 35 보다 밝은 미래를 이루어 내자
마이크 펜스 제48대 미국 부통령
- 37 한반도에 평화를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국 국무장관
- 40 세계평화정상연합
유럽 지도자 기조연설
- 41 세계평화정상연합
나이지리아 지도자 기조연설
- 42 WORLD SUMMIT 2022 서울 선언





참된 왕터

참부모님 탄신 기념식

2002년 2월 17일 | 한국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저명한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처럼 본인 부부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왕림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본인은 ‘참된 왕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우주만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상을 중심으로 우리 본연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주의 존재 질서는 ‘위하는 삶’을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주만상은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원칙을 갖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천리의 원칙이요 창조의 비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된 이상, 참된 사랑, 참된 행복, 참된 평화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동시에 인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을 이루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하여 사는 데서만이 참된 사랑이 발발하는 것이요, 참된 행복, 참된 이상, 참된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기원, 평화의 기원, 행복과 사랑의 기원은 상대를 위하여 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서 존재한다고 하는 자리에서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평화도 행복도 이상도 사랑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식구들 모두가 서로서로를 위하는 자세로 살게 될 때 그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간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참된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태어나기를 아내를 위해서 태어났고, 살기를 아내를 위해서 살고, 죽기도 아내를 위해서 죽겠다는 남편이 있다면 그런 남편이야말로 참된 남편일 것입니다. 참된 아내도

이와 같은 원칙을 따라서 오직 남편을 위해서 사는 아내일 것입니다.

이처럼 위하는 생애를 보내려고 하는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가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부야말로 이상적인 부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부를 통해 참다운 평화의 기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부는 비로소 참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부야말로 영원 보편의 참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상 실체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자식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자식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 천리입니다.

이런 부부야말로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이런 모범적인 부모의 모습을 본떠서 참된 자식의 도리, 즉 참된 효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효자는 어떤 자식입니까? 태어나기도 부모를 위해서 태어났고, 살기도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식이 참된 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위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원칙을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가정에서는 평화의 가정, 자유의 가정, 행복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며, 사회에서도 평화의 사회, 자유의 사회, 행복한 사회, 사랑의 사회, 본연적 이상의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 원칙만 고수하게 되면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사랑은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천리입니다. 우리는 위하는 삶을 사는 데도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를 놓고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이 주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먼저 투입하고 위하는 입장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지혜의 왕인 하나님도 평화와 행복, 이상과 사랑의 본연의 기준을 이렇게 '위하여 투입하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주 창조의 대원칙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주체가 먼저 대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위하는 삶을 보여 줄 때 대상은 자동적으로 주체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는 원리입니다. 사랑은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이는 행복이니 평화니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대상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과 이



2002년 2월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참부모님 탄신 기념식 전경.



참아버님께서는 가끔 노래를 부르면서 참어머님을 따라 부르거나 힘찬 소리를 내뿜곤 했는데, 그것이 참어머님을 항상 미소 짓게 했다.

상이 대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대상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하는 데도 겸손히 머리 숙여 위하라는 것입니다.

위하는 삶에는 영원이 있고, 번영이 있으며, 위해 주는 자리가 중심이 되는 천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아무리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하여 존재하라!'라는 한마디가 모든 경전들의 가르침 위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성경 66권도 결국

'위해서 존재하라!'라는 이 한마디로 총괄적인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위하는 삶의 가치를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천국이 현현하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평화와 행복과 이상이 현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놓고 보아도 남자나 여자는 본래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대를 위해서 태어나고,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고, 상대를 위해서 살아가고,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만을 위하고 여자는 여자만을 위해 사는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천대하고 무시하는 세계를 어떻게 자유의 세계요 평화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배척하고 자식도 낳지 않겠다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행복한 세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 주고 사랑해 주는 참사랑의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상이요 목적입니다. 자기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독재자에게서는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독재자가 세워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상대를 희생시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즉 위하는 참사랑의 삶과는 정반대의 길이 독재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는 모두 싫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는 모두 불행으로 시작해서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진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위해서 존재하라!'라는 천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중심삼고 전후좌우를 살펴보십시오. 가정생활을 놓고 보아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촌수가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그 가정의 어느 누구보다도 위하고 헌신하는 삶을 보여 줄 때 그는 자동적으로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식구들 모두가 그에게 의논하고 상의하며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보다 더 위하는 사람이 중심존재가 되는 것이요 책임자가 되는 것이 천리입니다. 사회나 국가를 경영하

는 일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자신보다 더 그 단체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주님처럼 모시고 하나님처럼 모실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의 중심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천년만년 지배를 받아도 더 지배 받고 싶고 지배를 받는 그 자체가 최상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어 보십시오. 오늘날 인류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진정으로 보살피고 지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갖게 될 때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라고 느껴 보십시오.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참사랑이 '나를 위해 있다.'라고 믿어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여러분은 안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서로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이 공식적인 원칙을 확대하여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세계 기준까지 도달하면 그 세계가 바로 인류가 바라는 유토피아적 사랑의 세계일 것이며, 이상의 세계일 것이며, 평화의 세계일 것이며, 행복의 세계일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지상천국이 바로 이런 세계일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늘이 보호하고 중심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인의 삶이 그 좋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만민으로부터 참부모로 불리고 있는 우리 부부이지만, 이 자리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일생을 줄곧 하늘과 인류를 위해 바쳐 왔습니다. 부모가 반대하고, 일족이 반대하고, 교회가 반대하고, 국가가 반대하고, 세계가 반대하는 자리에서도 본인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하늘의 가르침인 '위하는 삶'의 실천을 중단하지 않



미소 짓고 계신 참어머님.

았습니다. 참부모의 길은 이처럼 극과 극을 관통하는 외길이었습니니다. 그 결과 이제는 본인의 살아온 모습인 '참사랑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산불처럼 퍼져 가고 있습니다. 위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 수백만 가정들이 평화와 행복의 참가정들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참부모로 모시고 살고자 하는 가정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으로부터 천주권까지 8단계에 이르는 이상권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해방권까지 완성했으

니 바야흐로 인류의 소원인 유토피아, 즉 지상천국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도 하늘이 이 시대에 인류에게 주신 천리인 '위하는 삶'의 참사랑을 실천하시어 하늘이 축복해 준 중심자요 책임자가 되시고,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말씀은 평화경 제2편 5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기념 천일국 경배 기념식

천일국 10년 천력 1월 6일(양력 2022년 2월 6일),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기념 천일국 경배 기념식이 HJ가든홀에서 거행되었다. 각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피스링크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전 세계의 많은 식구들이 참석하였다.

경배 기념식에 앞서 한반도 평화 서밋 준비 상황에 대한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특별보고가 있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나날이 커져가는 위기의 상황 속에도 중단 없이 전진하며 준비해나가는 모습을 전했다. 윤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야죠. 하늘이 역사한다면 참여머님께서 저렇게 간절하게 간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조건을 만들어야죠.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떻게 하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신통일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진, 전진, 전진하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결의요, 결심입니다.”

경배 기념식

참가정의 성초 점화로 시작된 경배 기념식.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은 참부모님 성탄 경하와 한반도 평화 서밋에 대한 결의의 보고기도를 올렸다. 아름답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셨다. 전 세계 축복가정 모두는 기쁨의 박수로 참부모님을 모셨고, 경하의 마음을 담아 예를 올렸다. 참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담은 꽃바구니가 참부모님께 봉정되고, 참아버님 성탄 102주년, 참여머님 성탄 79주년을 경하 드리며 한반도 평화서밋 승리결의를 표현한 케이크를 커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세계 축복가정들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각 대륙 지도자들과 식구대표가 참부모님께 봉정했다. 이어 경배식이 진행되었다. 영육계 참가정을 시작으로 천정궁 세계본부, 신한국, 신일본, 신미국, 신아프리카, 신유럽, 신중남미, 신아시아태평양 순으로 전 인류를 대표해 예를 올렸다. 참부모님 성탄의 시간, 참여머님의 성수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다. 전 세계 저명한 지도자들의 참부모님 성탄 축하와 평화업적에 존경을 표하는 축사가 전해졌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 힘찬 음성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내려주셨다.

음악 공연

참부모님의 희망의 말씀에 감사하며,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축하 공연은 참가정의 문신출 가정과 문신흥 가정이 효정의 심정을 봉헌해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퓨전 국악그룹 퀸과 “고맙소”를 부른 가수 조항조가 참부모님의 성탄을 경하 드리는 무대를 꾸몄다. 이후 한반도 평화서밋의 승리를 위해 투입하고 있는 2022 스페셜 탑건 청년들이 효정을 봉헌했다. 문신출군과 문신흥군의 선창으로 모든 축복가정들은 “사랑해 당신을”을 함께 부르며 참부모님께 기쁨을 올려드렸다. 섭리의 3개국 한일미 대표자들의 우렁찬 역만세 삼창으로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기념 천일국 경배 기념식이 성료되었다.

천일국 대륙별 노래경연

더불어 이날 오후에는 참부모님께 효정을 올려드리겠다는 한마음으로 7개 대륙의 대표자들은 천일국 대륙별 노래경연이 펼쳐졌다. 영예의 대상은 ‘오 솔레미오’를 부른 신아시아태평양 데미안 던클리 대륙회장이 차지했다. 자녀들의 노래에 미소로 화답하시는 참여머님. 부모와 자식 간의 참사랑을 나누며 천지인참부모님 성탄을 경하 드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천일국의 자석이 되라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기념 천일국 경배기념식
천일국 10년 천력 1월 6일 (양 2022.2.6) | HJ가든홀 및 온라인 비대면



반가워요. 희망찬 약동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하늘이 기억하는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1962년 임인년(壬寅年) 그 해에 환영하는 기독교 기반 위에 참부모의 성혼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 십자가 후에 간절히 간절히 ‘다시 오마’ 한 메시아를 기다려 나온 기독교 문화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오마’ 했고,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한다 했으니 기독교가 기다려야 할 분, 꼭 만나야 할 분, 탄생되어야만 하는 그 분이 누구 일까요?

금년 임인년을 맞으면서 기독교를 품을 수 있었던 독생녀 탄생에 대한 진실을 밝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늘이 수고롭고 안타깝게 기다려야만 했던 6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독생녀 참어머니, 평화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로서 천일국을 선포했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

한 토대 위에 이제 섭리의 완성을 이 민족과 세계 앞에 드러내야 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은 자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활동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동안 이 한날을 위해서 하늘이 수고하고 준비한 의인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이 누구라고 밝히세요. 참부모와 하나된 여러분 앞에는 다 자석처럼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부모님을 모신 자리에서 진정한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나가자

2022 한반도 평화서밋 특별연설 말씀
천일국 10년 천력 1월 13일 (양 2022.2.13) | HJ글로벌아트센터 및 온라인 비대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의 소원과 정성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
습니다. 이 지구상에 200여 개국이 있으
나 그들은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추구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 앞에 점
점 더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나온 인
류 역사입니다.

본래 우주의 주인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인간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를 창

조하시고, 인간에게는 성장기간을 통한
완성되는 시간을 주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리 되지 못하여 오늘날 창조
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류가 되어버
렸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는
시작과 끝이 같으십니다. 기필코 승리의
날을 맞으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 가운데서 승리했다 하는, 인간조
상이 될 수 있는 참부모가 나와야만 창
조주께서 소원하시던 인류 한 가족, 지
상천국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
니다.

참부모 찾아 나온 인류역사

하늘은 6천년간 잃어버린 자식을 찾
아 나온 부모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에 맞는 인류를 선도할 수 있는 종교를
허락하시어 선을 추구해 나오도록 교육
해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늘은
선민이라는 나라를 택하시어 본래 인간
시조가 되어야 할 조상의 실수를 탕감복
귀하는 구원섭리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
었습니다. 그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로운 인내와 참음의 역사였습니다.

하늘은 4천년간을 수고하시어 ‘내 아
들이다’ 하는 독생자를 탄생시키셨습니

다. 그러나 창조 원칙에 의하면 독생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탄생시킨 가족은 물론이요,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 또한 이 독생자가 하늘의 섭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했습니다. 다시 와서는 어린양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기독교는 사도들에 의해서 2천년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 환경권은 ‘다시 오마’라고 한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하늘이 품을 수 있는 환경은 참부모의 탄생입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는 거듭날 수 있고, 중생 부활되어야만 창조주 하나님,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역사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중심인물이 6천년 만에 이 한반도를 통해서 탄생되었습니다.

1960년에 참부모가 탄생되었습니다. 참부모가 인류를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중생 부활시키는 섭리가 참가정 운동, 축복 행사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참부모를 통해서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상에서 참부모와 함께 자녀들을 거느리고 지상천국의 생활을 꿈꿔 오셨습니다. 그 일이 1960년에 출발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주인, 이 지구성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부모님이십니다. 수많은 나라와 강대국이 있지만, 그들은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만 그 나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늘이 “그래, 네가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구나. 이 나라는 네가 치리해라.” 이렇게 하여 나라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종점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종점에서는 내려야 합니다. 종점에 내려서는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참부모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부모로 모시는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이 한민족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화와 혈통,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이 왜 남북으로 갈라졌을까요? 지구성에서 유일한 마지막 분단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어야 동유럽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참부모를 통해서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자녀가 되며, 천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 민족은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하늘을 부모로 모시는 자리에서만 진정한 세계평화가 이뤄지고, 자유 평등 평화 통일의 행복한,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참부모로서 남과 북의 백성들에게 원합니다. 나와 하나되어 남과 북이 형제가 되는 자리에서 진정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수 있고, 세계 모든 인류가 하늘부모님의 아들딸로서 사는 평화통일 세계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지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지구가 황폐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각 해집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 특히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북미 대륙에서 엄청난 산불과 토네이도, 폭우로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까? 중국은 어떻고,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모든 대륙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이가 어떻게 발생되어 더 어려움이 있게 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불찰로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부모를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

그동안 불효했던 자식이요,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서 이루어드려야 하는 자식으로서 어떻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되어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책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세계에서, 또 이곳에 오시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하늘을 부모로 모시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나는 미래의 이 지구와 인류를 담당해 나갈 미래 후손, 손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지구상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지상 생활은 어떠할까요? 창조주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인간조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만물 세계는 창조 원칙의 순환법칙에 의하여 계속해서 그 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도 인간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나는 봄이 되면 동토에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수선화를 좋아합니다. 타락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류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늘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를 이 수선화를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아직 힘은 없지만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제일 먼저 뚫고 나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이 수선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참부모의 책임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권의 제약을 60년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과 같은 우군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를 통해서 참자녀가 되는 자리에서 하늘부모님의 꿈, 소원을 지상에 이루어 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9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서밋 축승회

천일국 10년 천력 1월 15일(양력 2022년 2월 15일),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9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서밋 축승회가 HJ가든홀에서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밝은 표정으로 참부모님께서 입장하시고, 한반도 평화서밋의 대승리를 경하 드리며 효정의 심정을 담아 모두를 대표해 참가정과 대륙 중심지도자들이 꽃다발과 예물을 봉정했다. 특별히 훈센 수상께서는 축승회를 위해 꽃다발을, 주한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예물을 보내왔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승리 축하 케이크 커팅을 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축승회가 펼쳐졌다. 하늘부모님의 은혜 속에 한반도 평화서밋을 무사히 마침을 감사하며 김기훈 회장의 보고기도가 이어졌다.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은 한반도 평화서밋 창설자 특별연설을 훈독했다.

이후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기적과 같은 '한반도 평화서밋' 승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런 한반도 평화서밋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있고 세계가 분단되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되어 있을 때 저희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하나가 됐고, 중단 없는 전진을 해온 이 모든 2년의 노정의 결실이자 신통일한국 안착 기반 조성을 위한 출발이요 출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말씀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전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어머니 닮아 사생결단, 전력투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부은 다리를 두드리시며 밤잠 못 주무시면서 세상을 품고자 뛰고 또 뛰셨던 어머니께서 157개국을 다 어머니 품으로 품으실 때까지 우리들은 뿔니다. 그리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면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하늘부모님의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각자의 태극기, 아니 각자의 천일국기를 우리는 꺼내야 하겠습니다. 조원모 외할머니가 태극기를 꺼내 들고 소리 높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만방에 하늘부모님의 조국, 천일국 만세를 힘차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수고한 지도자들을 격려하시며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다. 이어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축승회를 축하하며 천일국 지도자를 시작으로 가수 강진과 인순이의 흥겨운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더불어 이번 한반도 평화서밋의 승리를 위해 특별정성을 드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청년학생들이 참부모님 향한 효정의 마음을 담아 공연을 봉헌했다. 하늘부모님과 참아버님의 심정을 전해드리는 심정으로 "고맙소"를 함께 부르며 신통일한국이 이뤄질 때까지 참부모님과 하나 되어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섭리의 3개국 한국의 황보국 회장, 일본의 방상일 회장, 미국의 용정식 회장의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사생결단 전력투구 할 것을 결의하는 역만세 삼창으로 한반도 평화서밋 축승회는 성료되었다.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자

천지인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기원절 9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서밋 축승회
천일국 10년 천력 1월 15일 (양 2022.2.15) | HJ가든홀



그동안에 세계에서 이 한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한 결실이 승리로 이뤄졌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특히 임인년인 1962년에 정말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기독교의 반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되지 못하여 60년 만에 맞게 되는 2022년 임인년은 기필코 그동안 참고 기다려 나오신 하늘부모님의 존재,

하늘부모님을 당당히 외치고 알리는 참 가정, 친보가정들이 세계도처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 길은 참부모를 받아들여서 하늘부모님의 품에 형제로서 함께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늘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 그 길에 있어서 이제 유럽

대륙이 직면하고 있는 동유럽 문제, 동북아 문제를 놓고 볼 때 완전히 참부모와 하나된 자리! 하늘부모님의 참자녀로서의 먼저 된 자가 되어 이 하늘을 모르는 두 나라를 품을 수 있는 형님의 자리에서 동생을 교육하여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권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ㄹ

한반도 평화서밋 개최식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세계 정상들 모이다

월드서밋 2022의 일환인 '한반도 평화서밋'의 개최식이 천일국 10년 천력 1월 11일(양력 2022년 2월 1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과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일본의회의 3원 중계를 통해 개최되었다. 개최식에는 남북 공동수교 국가 157개국을 포함한 161개국의 정상급 지도자들과 더불어 학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6대 종교 대표자들이 함께 평화기원 합수식을 거행했다. 이어서 157개국의 80개 종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라 화이트 기독교 목사외 키 소바 나라타 불교 스님이 축사와 기도를 했다. 플라 화이트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신앙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화해를 위해 한학자 총재님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김 위원장이 총재님을 북으로 초청한 것은 총재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이다. 북한이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총재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영호 공동실행위원장은 참석자 모두를 환영하며 개최를 선언했다. 한반도 평화서밋의 공동조직위원장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평화서밋은 세계 정상들을 한 곳으로 모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방송은 한국 국회와 연결되었다. 임종성 국회의원이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으며, 뉴트 김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이 환영사를 했다.

세 명의 지도자가 각각 기조연설을 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상호의존에 대해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국가가 공공의 선을 위해 선의로 협력할 때, 우리는 평화를 위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호세 마누엘 바로조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상호번영에 대해 말했다. 이어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은 공유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2부에서는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가 기조연설을 했다. 두 번째 연사로는 일본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하라다 요시야키 전 환경부 장관과 세 번째 연사로 다테 추이치 전 일본 국회의장이 맡았다. 그는 "이번 평화서밋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한학자 총재님의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연사로는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기조연설을 했다.

3부에서는 먼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그는 한국이 세계 속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우리는 상호의존, 상호번영, 상호공유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마노 프로디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겸 전 이탈리아 총리, 미셰우 테메르 제37대 브라질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한반도 평화서밋은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3,517개 관영방송과 민영방송을 통해 방송되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싱크탱크 2022 포럼 분과세션이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한반도 평화서밋 특별공연이 오후 4시 30분부터 HJ글로벌아트센터와 잠실 롯데호텔과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다. 축복의 땅, 분열의 땅, 평화의 땅을 주제로 표현한 한반도 평화서밋 특별공연은 전 세계 지도자 및 내외 귀빈이 함께한 가운데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내며 감동을 안겨주었다. 





진실과 사랑의 무기

플라 화이트 목사

다양한 종교, 국가, 배경을 가진 저명한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월드서밋 2022에 참석해주시고 많은 도전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석과 참여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해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57개국의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해주는 수백만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행사를 후원해주신 천주평화연합과 워싱턴타임스 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왕국의 삼데크 훈센 총리가 한학자 총재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엔을 이끌어가면서 테러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모든 국가의 진정한 평화 조정자가 되신 비범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 한학자 총재님과 세계 각국의 권위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초종교 구국구세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한 총재님께서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 캄보디아,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한 총재님께서서는 북한과 남한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깊은 영적 기도의 기반을 세우셨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함께 한 제2차 초종교 구국구세 기도회를 통해 한국과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서 있으며, 남북한의 통일의 실현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펜스 전 부통령님, 희망전진대회, 싱크탱크 2022, 그리고 월드서밋 2022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만이 이 아름다운 한민족의 안타까운 분열을 끝낼 수 있다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갈라진 세상을 한 가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에베소서 6:12)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오직 진리와 사랑의 영적 무기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

력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벽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만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지도자들과 함께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늘 추구하셨던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해시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씨를 뿌리면 우리와 우리 세대는 함께 축복받은 가정, 결혼, 공동체와 국가를 거둬들이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통일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열쇠를 보고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한학자 총재님을 만나 뵈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한 총재님과 남편 문 총재님께서서 기독교 지도자로서 북한 공산주의의 기독교 박해에서 탈출하여 출발한 용감한 노정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문 총재는 2년 8개월 동안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 북한과 세계를 치유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한 총재님께서서는 다섯 살 소녀로 독실한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남하하셨습니다. 한 총재께서는 조국을 다시 하나로 통일하려는 꿈과 소명을 지켜왔습니다. 한 총재님, 우리 모두는 한 총재님께서 성공하고 계시고, 한국의 평화통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한 총재님의 사명을 믿고 있으며 평화와 가정을 위한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능력으로 모든 종교와 정치지도자가 함께 화합을 위해 뭉칠 것이라 믿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 총재님을 북한으로 초청한 것은 한 총재님께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총재님, 저는 북한이 번영과 평화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 총재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 글은 2022년 2월 11일 한국에서 열린 월드서밋 2022 개최식, 플라 화이트 목사의 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업적

스티븐 하퍼 제22대 캐나다 총리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주제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2020년 이곳에서 열린 월드서밋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실, 거의 정확히 2년 전 이곳에서 중국에 매우 심각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거의 1년 반 동안 다시 대중 앞에 서서 연설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곳이 문을 닫거나 정지해 있는 동안, 천주평화연합의 활동은 계속해서 전속력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전염병이 대유행 하는 가운데 천주평화연합은 희망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8월 첫 대회를 개최됐고, 같은 해 11월,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됐습니다. 또한 천주평화연합은 시급한 지정학적 정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다수의 글로벌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특히 중동평화 이니셔티브와 아브라함 협정의 영향을 주제로 다뤘는데, 이는 당시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펜스 부통령님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신 두 분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천주평화연합은 결코 멈추거나 쉬지 않고 활동을 계속해 나왔습니다.



저는 엄청난 실행 계획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 우리를 하나로 모이게 한 평화서밋 조직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끈질기게 모색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 경제 지도자, 여성 지도자, 언론 지도자, 학계 선두주자, 예술계 선두주자들과 함께 모여, 모두가 한반도와 다른 지역의 평화와 화해의 길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데 전념하는 천주평화연합의 온라인 행사와 콘퍼런스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평화서밋도 예외가 아니며, 157개국에서 45명의 전·현직 국가원수들을 포함하여 각 행정부 및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인적 노력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가정강화, 신앙증진, 초종교 협력은 물론 가장 큰 명분인 자유와 평화를 지원하기 위해 천주평화연합과 워싱턴 타임즈를 포함한 수많은 단체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한학사 총재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이곳 대한민국으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아무리 자주 와도 모자란 듯합니다. 세계 정세가 절망으로 이를 때마다 우리는 잠시 한국이 이룬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이 한국에 대해 잘 알게 된 것은 한국전쟁의 희생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유와 번영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난하고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진보적인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룬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한인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번창하여, 현재 20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관광객, 사업가들의 교류로 중요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캐나다-한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저희 정부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저에게 영원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아래 한국과의 상업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고, 오늘날 한국은 캐나다의 7대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는 북한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선택지를 탐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있는 도전과 기회를 통해 우리와 여러분의 많은 다른 친구들, 그리고 동맹국들이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세계인의 화합과 국가 간의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천주평화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하퍼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

믈라덴 이바니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 대통령

각국 정상 여러분,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중요한 서밋에서 여러분 앞에서 연설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강대국들간의 관계가 주요 원인이었던 갈등은 전쟁과 국토 분단으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행사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방안을 모색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하시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많은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분의 깊은 헌신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주평화연합 창설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더 넓은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훈센 총리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를 안정화시키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세계로 이끌어 낸 노고에 대해 높이 평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역할입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직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의 풍부한 경력 전반에 걸쳐, 세계 평화와 사람들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직접 뵙는 기쁨을 누린 기억이 있는데, 그가 평화구축과 사람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세 분의 지도자 모두가 이번 서밋에 큰 의미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분들 덕분에 다수의 전·현직 국가 지도자들이 서밋의 긍정적인 결과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갈등이 만연하고, 국가들이 서로 고립되고 거리를 두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는 이기적인 접근방식이 지배적이며, 특히 코로나 시국인 관계로 국가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갈등을 빚어 온 나라 출신으로서 타협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타협이 이루어지면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갈등이 있는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와 주최 측은 전폭적인 지지와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경험은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강대국들의 합의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화를 염려하는 우리 모두가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강대국들에게 그들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은 평화와 통일, 번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평화 구축과 화해 과정에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매우 큼니다.

모든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시민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역 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껴야 합니다. 편견을 없애고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경제 번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품 교환과 무역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 또한 더욱 용이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전반적인 관계 완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번 서밋의 성공을 기원하며, 결국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 국민들은 마땅히 이를 누려야 하며, 그 긍정적인 목표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은 많은 성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긍정적인 발전은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며, 이것이 최종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천주평화연합은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몰라덴 이바니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계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세르비아계,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계 3개 민족별로 한 명씩 세 명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한반도를 향한 소원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천주평화연합 공동 창설자이신 존경하는 한학자 총재님, 존경하는 친우이자 아프리카 세계평화정상연합의 의장이신 궤력 조나단 의장님, 세계천주평화연합의 토마스 윌시 의장님, 신사숙녀 내외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학자 총재님과 천주평화연합의 모든 회원 여러분, 보편적인 인간성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서로간의 차이를 향해 관용과 존중의 가치를 일구고, 의심을 다스리며 원망을 달래고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며, '사람' '문화' '문명'의 평화공존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금번 평화서밋의 주제인 '신통일한국 안착을 향해'는 우리에게 낙관적인 미래와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미래는 가장 암울한 선택부터 가장 빛나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평화보다 폭력이 낡은 승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것을 신성시하는 전쟁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혜롭고 현명한 평화의 선택을 함으로써 발전과 인류애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학평화상 수상자인 저는 현명한 평화의 선택을 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인해 늘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평화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알아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용기와 신뢰, 소통의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평화는 상호이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피어납니다. 전쟁이 한민족을 갈라놓았다고 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싶습니다. 한민족은 그들의 전설적인 용기와 천재성을 발휘해서 옛 두려움에서 나온 불신을 극복하고 다시금 신뢰와 소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의 염원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를 향한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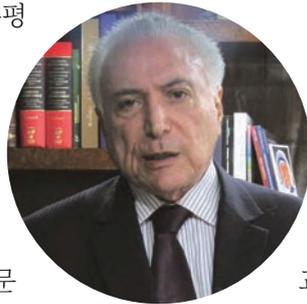
한국의 발전을 통해 배운 것

미세우 테메르 제37대 브라질 대통령

먼저 저를 월드서밋 2022에 초청해 주신 천주평화연합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정말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지역적이든, 세계적이든, 평화와 관련된 모든 것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한반도 평화서밋 공동 조직원장이신 삼데크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총장님과는 제가 이곳 브라질에서 하원의장,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여러 공직을 거치면서 친분을 맺게 되었는데, 유엔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일반적인 성격의 회의가 개최되었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한학자 총재님께도 조국인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간 평화를 위한 비전과 활동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따라서 이번 월드서밋 2022의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주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과 전 세계에 발전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세계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는 세계적인 회의입니다. 이번 월드서밋을 통해 전 세계 평화대사 네트워크와 함께 천주평화연합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공생, 공영, 공의의 이상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이야기할 때면 자연스럽게 발전의 주제, 화합의 주제, 국가의 위대함이라는 주제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내용은, 어느 특정한 때에 제가 아직 공직에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종일 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가 브라질 연방 공화국 대통령직을 맡게 됨으로써 수많은 종일 교육 공백이 생긴 중등 교육의 개혁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가 브라질 국민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이곳 브라질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가져온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에 저를 초대해 주신 한학자 총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평화대사 임명장을 자랑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증서는 저를 고귀하게 만들어 주며, 자연스럽게 여기에 따르는 저의 지위 또한 높여 줍니다.

아울러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이번 서밋의 놀라운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언

김형석 전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형석 전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입니다.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저의 의견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모처럼만에 봄이 오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고, 이후에 북한이 회담결렬에 반발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선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창궐하여 국가 간 소통의 커다란 장벽이 생겼으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을 차단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체봉쇄 태세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북협상의 결렬, 북한의 반발, 코로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반도 정세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2022년 새해 들어 1월 한 달 기간 동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일곱 차례의 무력시위를 하였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잇따른 무력시위는 주권국가의 안전을 위해 국방력 강화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활동을 문제 삼는 국제사회의 공정성을 잃은 이중적 기준과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기하지 않을 경우 2018년 남북 및 미북 대화 기간 중에 중단하였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활동을 재개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의 행위에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경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등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의 관심사에서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2022 한반도 평화서밋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궁극적인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달성하느냐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1945년 8월 분단된 이후 남북관계 차원에서 그리고 유엔 등 국제적 차원에서도 일관되게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한과 북한으로 영원히 분단되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쟁이라는 무력이 아닌 적극적 관여와 외교적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적 방법 속에는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에 대비하는 힘에 의한 억지력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교체와 미국, 중국, 러시아 입장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아닌 만큼 북한에 초점을 두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서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정권 교체 등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일종의 독일의 통일을 가져온 서독의 일관된 동방정책처럼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일관된 정책과 노

력을 기울이자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화 하자는 겁니다. 정부 당국이 수행하는 국가 간 전쟁 중에도 민간차원에서는 상거래 행위와 인도적 지원 행위 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외교나 군사 안보 차원의 당국의 역할과 함께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소재로 북한과 소통하고 교류를 하는 민간의 역할이 더해질 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효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사회의 중심이 1950년 이전 항일 빨치산 세대에서 경제적 풍요와 정보통신 등 생활의 편의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의 500여 개의 장마당과 500만대 이상의 핸드폰의 보급, 그리고 한류문화의 전파 등은 북한 당국이 무작정 민간의 욕구를 누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으로 장마당의 돈주 세력 약화를 시도하다가 시장에서 먹혀들어가지 않자 장마당과 공존 공생하는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층은 자신들의 지위에 위해만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스위스 베른에서의 청소년 시절 유학 경험상 경제적 풍요를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집권 초기 북한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 해결을 공약하였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현대화된 사회주의 농촌건설과 평양 현대식 종합병원 건설 등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제 강국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안보 문제와 분리한 민간차원의 경제적 사회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 있어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역할이 매우 기대됩니다. 북한과 연대가 강한 아세안 국가의 목소리에 북한은 귀를 열고 경청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소통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과 체제 유지가 가능함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로 한반도 안정과 번영이 현실화된다면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이득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천주평화연합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관여 계획은 매우 의미 있고, 충분히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2022 한반도 평화서밋에 함께 참여해서 대한민국 정부인 통일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ㄹ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열려

글로벌 감염병 대응에 힘쓴 사라 길버트 박사, 세계백신면역연합 공동 수상
훈센 캄보디아 수상 설립자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

문선명·한학자 총재님께서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상으로 제정하신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이 천일국 10년 천력 1월 12일(양력 2022년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전·현직 정부각료 및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12년 노벨상 수상자인 호세 마누엘 바로조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학평화상위원회에서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수상자를 선정했음을 밝히고, 선학평화상이 앞으로도 세계평화에 헌신한 용기 있는 위대한 인물을 계속해서 발굴할 것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위기 속에서 빠르게 백신을 개발한 사라 길버트 박사였다. 그녀는 세계에서 질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백신인 옥스퍼스-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했다. 바로조 위원장이 길버트 박사에게 선학평화상 상패와 메달을 수여했다. 길버트 박사는 수상자 연설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상을 자신이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또다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함께 연대하고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수상자는 2000년 설립된 세계 최대 보건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이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에서는 세계에서 질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길버트 박사와 세스 버클리 대표는 선학평화상에 감사를 표했고 질병퇴치에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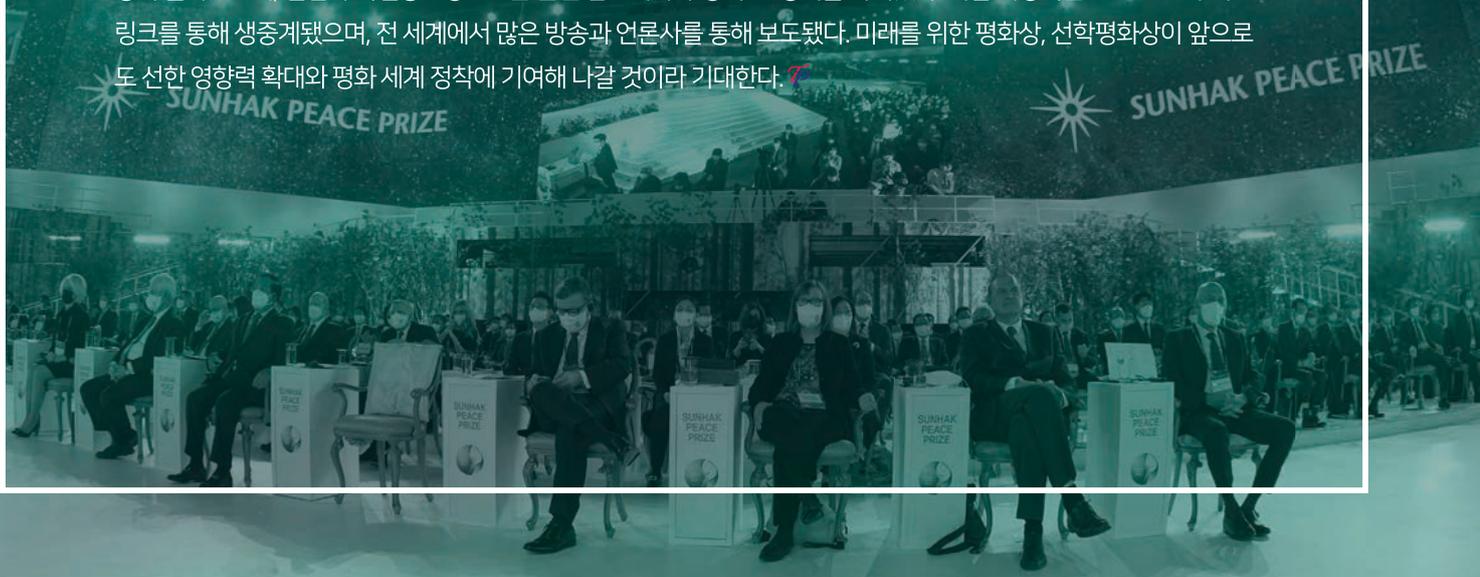
에후드 올메르트 제12대 이스라엘 총리는 백신 평등을 위해 애쓴 제5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제5회 설립자 특별공로상 수상자는 훈센 캄보디아 수상이 선정됐다. 참여머님께서 직접 특별 공로상을 시상하셨다. 훈센 수상은 권위 있는 상을 수여 받게 된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훈센 수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뉴트 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으로서 축사를 전하며 선학평화상이 미래를 위한 평화상으로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아시아문화위원회, 그리고 아시아비전연구소, 천주평화연합과 함께 공동작업으로 출간되는 저서 "캄보디아를 위한 훈센 수상의 비전과 사상"을 소개하며, 자서전 출간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5회 선학평화상은 미래를 위해 글로벌 전염병 대응에 힘쓴 사라 길버트 박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에서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설립자 특별공로상으로는 훈센 캄보디아 수상이 그 영예를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은 MBCNET과 피스링크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전 세계에서 많은 방송과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미래를 위한 평화상, 선학평화상이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 확대와 평화 세계 정착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대가 기적을 만든다

호세 마누엘 바로조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5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해주기 위해 모처럼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먼저 이처럼 큰 성황을 이루어주신 데 대해 여러 내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선학평화상은 고(故) 문선명 총재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고 그 유지를 선양·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영부인이신 한학자 총재의 특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이번 제5회 시상에서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영웅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팬데믹에 직면해 우리는 ‘평화를 위한 건강’, 그리고 ‘건강을 위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사라 길버트 박사님과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뜨거운 인류애로 평화를 위한 건강, 그리고 건강을 위한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은 우리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과학은 전 인류를 인질로 잡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백신’의 형태로 많은 생명을 구하며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평생을 백신 개발에 헌신한 길버트 박사님과 같은 과학자들이 아니었다면 팬데믹의 상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팬데믹은 우리에게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과학이 선물한 ‘백신’이라는 도구가 빈부에 상관없이 전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질 때, 비로소 팬데믹은 종식될 수 있습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백신국가주의와 이기주의를 이겨내고 백신



의 공평한 보급을 이끈 어벤저스와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바이러스는 분열을 통해 번성하지만, 오직 연대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선학평화상의 설립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님은 평생동안 평화는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가 한 가족처럼 돕고 사랑할 때라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고 절규하셨습니다. 인류 모두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더 강력한 협업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팬데믹에 기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뿐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불평등과 같은 이 시대의 난제들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로 다자간 접근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선학평화상을 수상하시는 사라 길버트 박사님과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바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5회 선학평화상을 수상하시는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과 함께 삼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학평화상에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용기 있는 의인(義人)들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매하고 기품이 넘치는 평화의 문화를 창조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호세 마누엘 바로조(Jose Manuel Barroso)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021년 12월 30일 개최된 제5회 선학평화상위원회 출범식에서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2년 2월 12일 진행된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환영사를 정리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백신 개발

사라 길버트 옥스퍼드대학교 백신학 교수

존경하는 한학자 총재님, 바로조 위원장님, 저명하신 내빈, 신사숙녀 여러분, 이번에 선학평화상 수상자가 되어, 앞서 수상하신 명망 있는 분들의 뒤를 잇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2년 전이었다면 제가 선학평화상 후보에 오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활동하는 과학자이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을 위해 몇 년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를 상대로 신속한 백신 개발에 주력했던 연구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최대 규모의 감염 사태가 서아프리카에서 발발했습니다. 에볼라 백신 개발은 처음에는 빠른 속도를 냈지만 다음 단계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나 이상의 백신을 대상으로 보호 효과를 테스트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연구팀 내에서 저는 어떤 것이 순조롭고 어디에서 지연이 발생하는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여러 단계를 계획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주목했습니다.

2020년 초 새로운 바이러스가 질병을 유발하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보고를 접하고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할수록 우리 연구팀은 성장했습니다. 백신이 생산되고 실험을 거치고 마침내 긴급사용승인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수많은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를 보탬으로써 개발된 백신이 최대한 빨리 세계에 보급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협력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대유행 기간 수익 창출 없이 백신을 생산할 것이며, 중저소득 국가에 한해서는 이 같은 가격정책을 고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백신 공급의 최대화, 백신 효과의 최대화를 목표로 세계 곳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했습니다. 최소한 170개 국가에서 이 백신을 사용



중이며 25억 회분이 넘는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 60퍼센트 이상이 최소한 1회 이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양한 백신들의 대량 접종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제는 한 나라도 빠짐없이 백신을 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대유행의 타격이 줄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태연히 일상으로 복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했던 일과 잘못했던 일로부터 배운 바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공평한 백신 공급이 이뤄지도록 전 세계 백신 제조시설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백신뿐만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고 밝혀내는 첨단 기술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대유행 기간에는 무척 유익한 국제 협력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실시된 아스트라제네카 3차 임상실험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고 수입이 얼마이며 정치적 견해가 어떻든 간에 바이러스는 차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을 계속해서 방어력을 높여야 합니다. 서로 간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적, 해로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력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사용하면 큰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은 때때로 지치고 버거운 작업이었지만 궁극에는 중요하고 보람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업적을 알고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와 국제기관들이 손잡고 일함으로써, 또다시 전염병의 위협에 대응해야 할 때 2020년보다 더 철저히 준비된 모습을 갖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2022년 2월 12일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에서 사라 길버트(Sarah Gilbert) 교수의 수상자 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개발국 백신보급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다

세스 버클리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최고경영자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하 '가비')을 대표해 이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은 공유된 목표입니다. 저는 이 열망을 실현하고 계신 한학자 총재님의 끊임없는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 총재님께서 창설하신 이 권위 있는 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조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 '가비'에게 있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백신 접종을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어린이와, 최근 들어서 어린이의 부모까지 건강을 개선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출생지와 상관없이 건강한 미래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공평하게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안정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은 번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더 부유한 사회이며, 이러한 번영 안에서 안정과 평화가 옵니다. 역사는 무너진 경제가 민족주의와 위기와 갈등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해도 우리는 건강과 경제 및 안정 사이의 전 세계적 상호 작용을 즉각적으로 관찰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수조 달러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세계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계적 팬데믹을 이겨내고 경제적 손실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협력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선학평화상 재단과 저명한 수상자들은 파트너십 정신과 다자주의를 실현해왔고, '가비' 또한 2000년 창립 이래 그래왔습니다. GAVI는 세계 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UNICEF)과 같은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백신 제조업체, 공여국 정부와 수혜국 정부를 포괄하는 하나의 연합이자 파트너십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놀라운 결과를 이뤘습니다. 이제 '가비'는 절반에 가까운 세계 어린이들이 홍역에서 디프테리아, 폐렴에서 소아마비에 이르는 여러 질병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희는 9억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70퍼센트 감소시켰으며, 저희가 봉사하는 저소득 국가에서 어린이 사망률을 50퍼센트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러한 진전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두려움과 국경 봉쇄, 더 나아가 보건 체계의





집중과 관심을 팬데믹으로 돌려야한다는 사실로 인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소득 국가의 백신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비’는 일상적인 예방 접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의 영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접종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십 년의 경험을 적용해 팬데믹에 대처할 다자간 해결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유니세프와 함께 세계 최초의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이하 코백스)를 창설해냈습니다. 팬데믹 동안 모든 국가와 인구가 백신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코백스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다자간 해결책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종 후 12개월 동안 WHO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에 10억 도즈 이상 전달했습니다. 이중 90%의 백신은 저소득 국가에 무료로 전달되었습니다. 코백스 파트너, 정부, 전 세계 백신 접종자 및 의료 종사자의 놀라운 노력 덕분에 코백스 백신은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히말라야 정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은 또 다른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팬데믹에 대한 다자간 해결책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우리는 백신 불평등을 종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종식하겠다는 코백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지난 2010년부터 ‘가비’의 핵심 임무를 열렬히 지원하고, 작년에 코백스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백신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한민국의 감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상을 제네바에 있는 ‘가비’ 사무국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파트너를 포괄하는 연합의 대표자로서 받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예방 접종 관리자와 의료 종사자들은 백신 접종 기회에 접근이 불리한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좋고 더 건강하고 더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비’의 모두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세스 버클리(Seth Berkley)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최고경영자의 제5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평화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훈센 캄보디아 수상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2022년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깊은 감명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의 오랜 내전을 종식시키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제 공적을 인정해 주신 선학평화상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동 개발자인 사라 길버트 박사의 선학평화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의 업적은 코로나19 대유행과의 싸움에 지대하게 기여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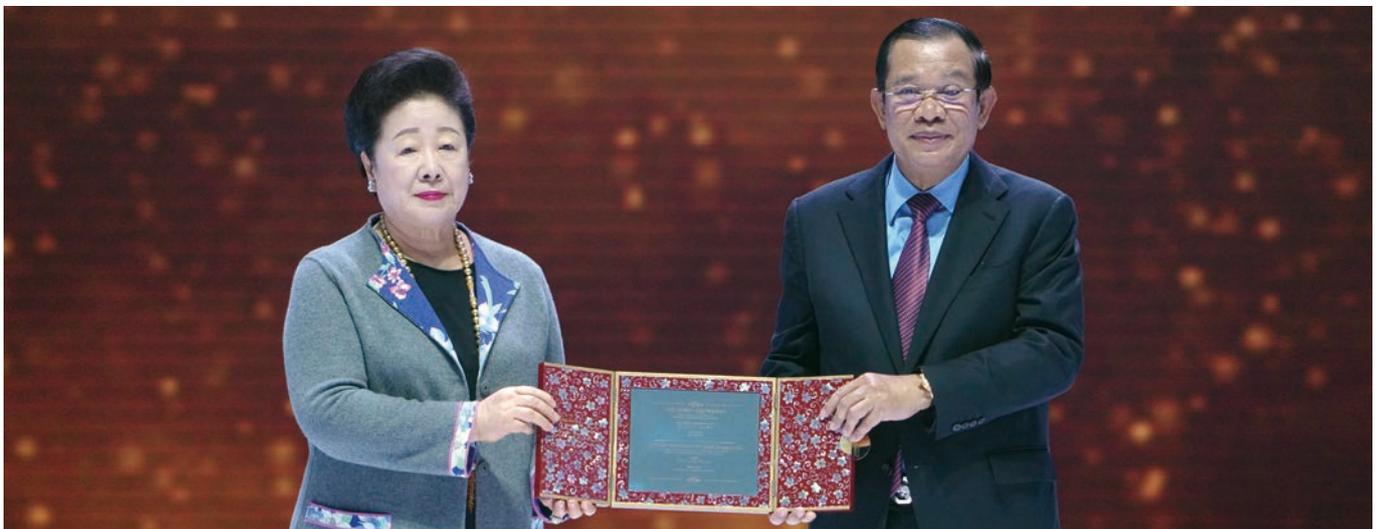
이번 수상은 저 혼자서 이룬 일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 故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과 왕비 그리고 현재의 군주는 대가족으로서 모든 캄보디아인들의 국민 통합 정신을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둘째, 제가 조국의 평화를 찾아 모험을 하는 동안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에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셋째, 캄보디아 정부의 지도자들과 구성원들, 그리고 모든 군대는 평화를 구축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넷째, 우방국과 국제 사회는 캄보디아의 평화 프로세스와 분쟁 후 국가 재건을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강력한 평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상생(Win-Win)' 정책에 큰 지지를 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평화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평화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소를 짓게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화를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갈등이나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수십 년 동안 내전을 겪으며 성장하고 살아온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1970년 저는 조국이 분열되고 전쟁이 발발하자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조국이였다면 아름다운 유년과 10대 시절을 보냈겠지만, 저의 유·청소년기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저의 미래와 조국의 미래에 대해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캄보디아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제 꿈을 이루는데 거의 30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저는 고난을 견디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



는 부상당했고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깊은 밤 캄보디아에 입신한 아내를 남겨둔 채, 뺨뺨하게 무장된 지뢰밭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1996년 저는 다시 한번 생명의 위협을 감수했습니다. 저는 크메르 루주(Khmer Rouge)의 거점에서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그들의 생명, 재산 소유권, 계급 및 직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Win-Win)정책을 이끄는 정부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캄보디아가 1998년에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었고, 캄보디아 국민들은 평화와 발전이 제공하는 혜택과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20년 이상 평화를 유지해 왔으며, 우리는 이 평화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과 평화에 대한 캄보디아의 경험을 통해 “평화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 평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 평화가 없으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도 없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평화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다.”는 문선명·한학자 총재님의 신념에 동의합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수천 명의 캄보디아 군인들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하고 아프리카와 중동의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시키는 것을 최우

선 과제로 삼았으며, 그 지역의 평화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선의와 책임감, 정직함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 지역과 세계의 평화는 기후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빈곤 및 식량 불안정, 강대국 간의 경쟁, 민족주의의 부상, 테러리즘,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인류의 진보를 방해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인류 전체를 전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합니다. 평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현재’의 우리들에게도 필수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학평화상의 슬로건처럼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2022년 2월 22일에 개최된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에서 창설자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훈센(Samdech Techo Hun Sen) 캄보디아 수상의 수상자 연설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서밋 및 100만 구국구세 희망전진대회

천일국 기원절 9주년 기념일인 천일국 10년 천력 1월 13일(2022년 2월 13일) 오전 9시, 경기도 가평군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157개국의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평화애원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가운데,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비전을 중심한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서밋"이 개최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52곳의 지역 행사장에서는 "100만 구국구세 희망전진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

한국의 MBCNET과 전 세계 3,517개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본 행사에는 정상들의 입장으로 시작됐다. 157개국을 대표하는 종교지도자 14명이 초종교합수식에 참여했으며, 플라 화이트 전 미국 정부 종교 특별 고문이 평화기원을 해주었다. 본 행사의 공동조직위원장인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와 안보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12명의 지도자가 축사를 보내왔다.

기조연설 I

첫 번째 기조연설은 세계평화정상연합에 속해 있는 정상들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누어 연설을 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상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전·현직 국가 원수들의 사전 녹화된 영상의 형식으로 여러 정상들의 주요 연설을 전했다. 아메리카를 대표해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아시아에서는 아베 신조 제98대 일본 수상,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의 호세 마누엘 바로조 제11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겸 포르투갈 수상,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해서 무하마드 부하리 현직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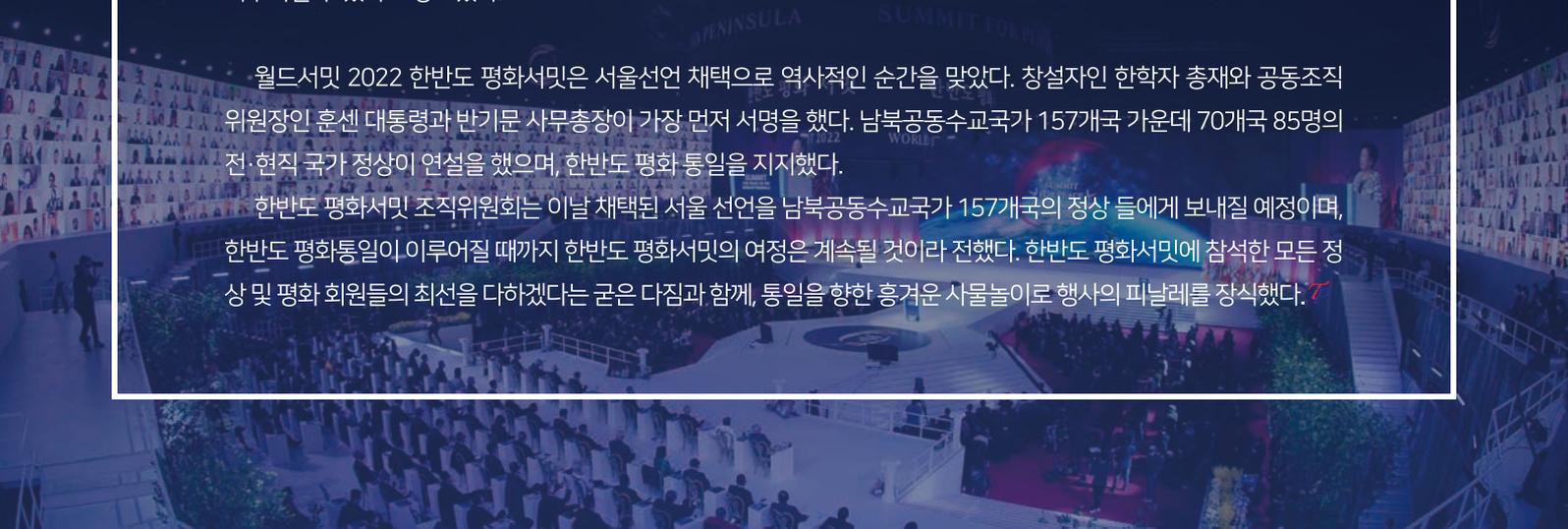
두 번째 기조연설은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비전을 주제로 세 명의 연설자가 나섰다. 공영(共榮), 정치 부문을 대표해 마이크 펜스 제48대 미국 부통령이, 공영(共榮)·공의(共義), 외교 부문을 대표해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국 국무장관이, 공생(共生), 경제 부문을 대표해 짐 로저스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 III

평화서밋 공동조직위원장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이번 서밋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학자 총재는 창설자 특별 연설을 통해 한반도가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라고 지적하며 동유럽과 동북아의 평화는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류 한 가족의 세계는 하늘부모님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서밋 2022 한반도 평화서밋은 서울선언 채택으로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 창설자인 한학자 총재와 공동조직위원장인 훈센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이 가장 먼저 서명을 했다. 남북공동수교국가 157개국 가운데 70개국 85명의 전·현직 국가 정상이 연설을 했으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지했다.

한반도 평화서밋 조직위원회는 이날 채택된 서울 선언을 남북공동수교국가 157개국의 정상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 평화서밋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 전했다. 한반도 평화서밋에 참석한 모든 정상 및 평화회원들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통일을 향한 흥겨운 사물놀이로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하여

반기문 한반도 평화서밋 공동 조직위원장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끌어 냈던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글래스고 기후협약은 삼림 벌채, 메탄 배출, 화석연료 의존도 등을 줄이기 위하여 무공해 자동차와 같은 의미 있는 내용을 선언하였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제 후임인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의 말에 따르면 협약은 타협이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선언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정치적 집단들 간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정치적, 사회적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적 변화 속에서 전염병, 기



후위기 등 새로운 위협으로 가득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현재 세계 안보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분들과 동맹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반도는 분단된 지 75년이 넘었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시도하는 우리의 열렬한 열망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전쟁과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올해 1월 내내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태평양의 어느 지역이든 목표물에 아무런 예고 없이 핵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지속 가능한 평화



와 안보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하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10번 이상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유엔의 3대 목표

여러분, 저는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유엔은 20세기 동안 우리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어가면서 이루어 낸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유엔은 1945년 창설된 이래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성과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생명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준 유엔에 많은 빛을 지었습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10년간 재직하면서 평화, 개발, 인권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엔의 3대 목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것은 세계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안보 없이 인권의 존중과 인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들의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싱크탱크 2022, 월드서밋과 같은 UPF의 노력은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돌파구를 찾아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향한 길은 인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한민족의 통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UPF와 같은 단체들이 정부, 종교 단체, 인도주의 단체, 투자자, 학계, 청년 지도자와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글로벌 리더 및 NGO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각 이해 당사자들의 대화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는 그날이 그립습니다. 특히 북한에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남한 국민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지혜와 진정성,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님과 아세안(ASEAN) 현 의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월드서밋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밝은 세상을 위해 다 함께 더욱 노력합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목표이자 책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힘은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금번 평화서밋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실현과 조화, 화합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한반도 한분과 대화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천주평화연합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세계평화의 대의 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계시는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총재님이 어린 나이에 북한을 탈출하신 놀라운 이야기는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총재님께 감사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부군이시고(故) 문선명 총재님과 함께 워싱턴 타임스를 창립하신 일입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앙의 자유, 진리를 수호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양위분께서는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한학자 총재님이 평화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들에 축하를 보냅니다. 저의 영적 멘토인 플라 화이트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총재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요, 최근 새로운 국제연대체인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게 하셨습니다.

평화서밋 공동 위원장이신 삼테크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수백 명의 고위 지도자들, 외교관들, 저명하신 지도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대통령 시절 한반도와 세계 평화실현을 목표로 희망적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지휘하게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전혀 가망이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나약함과 우유부단함 구세대적 사고방식은 위협과 분쟁 증오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과거에 사용했던 뻔한 접근법을 거부하고, 수십 년 동안 실패만 반복했던 진부한 사고방식을 버렸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저의 친구 일본의 아베 총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상황에 대처할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강경한 접근법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힘과 권능을 최대한 전담하면서도, 실제로 그 힘을 사용하거나 그 누구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미국의 힘을 확실히 하면서도 미국의 진정한 국익과 본질적인 목표를 놓치지 않고 미국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힘을 사용하는 일이 평화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봅니다. 힘은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힘의 정의는 이렇게나 간단합니다.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에게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4년 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저는 직접 만나서 북미 회담을 성사시킨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그의 관계는 원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 한국 DMZ까지 이어진 만남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더 발전된 관계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미국과 우방들 역시 김 위원장과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비전이 현실이 되길 원한다면 북한이 비핵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9년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수순을 밟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를 구축했고 미래 돌파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인 인질들을 돌려보내고 한국 전쟁 참전 미군들의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 미사일 시험이 수차례 이어지는 등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지도자들을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압니다. 저라면

지난 4년간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귀한 기회를 위태롭게 할 그 어떤 결정이나 행동도 하지 말아 줄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협력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협력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제는 꽃을 피우고 거대한 나무로 키워야 할 때입니다.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스러운 몇 해를 보냈습니다. 이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입니다.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향후 몇 년간 지속이 예상되는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을 때 저는 항상 미국의 국익을 추구했으며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도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수차례 말씀 드렸듯이 저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적극적인 협력과 통합, 경제 발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핵무기의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핵무기는 도움이 안됩니다.

북한에게 비핵화는 최대한 심각한 위협은 아닙니다. 비핵화는 최고의 기회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편 한반도와 전 세계의 위험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와 동유럽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란은 핵폭탄 개발에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앞에 놓고 저는 중요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남한과 일본 호주 인도 기타 다수 동맹국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형태의 영토 확장이나 침략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이해관계와 목적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안정과 무역 협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일어났던 일들과 관련해서 우방국과 적국 모두에게 확실히 해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지도자들의 나약함을 미국의 나약함으로 착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같지 않습니다. 같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입니다. 오래된 정치인들은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늘 그렇듯이 강하고 긍지가 넘치며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모든 적들에게 가장 위대한 나라이자 적들을 상대할

때는 최대한 단호합니다.

아프간 철수와 일이 처리되는 방식 그리고 기타 여러 곳에서 드러난 무능함 때문에 몇몇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인들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상황을 보고 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속상해 하면서 뭔가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성실하고 강인한 미국인들이 더욱 굳게 결의를 다지게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미국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강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밝은 내일의 희망을 공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명 안에서 단결하고, 비전에 충실하며 무엇보다 당당하게 우리의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생명의 고귀함을 믿습니다. 또 모든 이들이 정부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권리와 자유 존엄성으로 축복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임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의 중요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자유가 모든 자유의 바탕이 됨을 확신합니다. 또 강력한 주권국가와 독립국가들은 인류역사에 있어 평화와 자유 정의를 실현할 가장 위대한 수단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정의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세계인들을 하나되게 하는 가치이자 원칙이며 확신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연설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과 선의를 가지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안전과 번영 하나됨을 거쳐 마침내 평화를 실현할 한국, 그 한국을 위한 수고와 노력과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인들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2022년 2월 13일에 열린 World Summit 2022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세계평화정상연합 아메리카대륙 대표하여 기조연설을 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제45대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다 밝은 미래를 이루어 내자

마이크 펜스 제48대 미국 부통령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에 천주평화연합과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서밋, 100만 구국구세 희망전진대회에서 강연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모였습니다. 훈센 캄보디아 왕국 총리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 이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행사는 157개국을 모아 각계 정부 기업 그리고 종교와 시민사회의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월드서밋이 2020년 2월에 개최된 이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와 가정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국가들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담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용감한 의지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와 경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노력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단순히 과거의 세상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 역사적인 한반도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신앙과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자유를 추진하며 미국과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용감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워싱턴 타임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평화연합 그리고 특별히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고 오늘 저희를 맞이해 주신 한학자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오늘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에 함께 모여 평화의 씨앗을 심고 시간이 지나 평화라는 결과를 수확하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통령

령으로서 지난 4년간 저는 국내외로 강한 가족과 교육과 법 아래 동등한 대우,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진정한 국가적 위대함의 근간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는 저와 미국과 한국의 국민들이 70년간 중시했던 가치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이신 에드워드 펜스 소위와 저와 아버지와 같은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한국전쟁에서 수호하고자 했던 가치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통령으로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에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나 한국과 북한은 공존해 왔습니다. 한쪽은 자유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 번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독재와 억압의 무게 아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한국은 민주주의, 자유경제, 언론의 자유, 강고한 가족관, 인간의 존엄, 종교의 자유, 그리고 법 아래 평등과 살아가는 권리 등, 공통의 신념을 가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증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대표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지역 내에서 사람들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 오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수호해오면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고 일하고 신앙을 가질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에 중국과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독교인과 유대인, 이슬람교도 및 소수 종교인에 대한 탄압을 규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탄압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종교의 이유로 억압받는 자들에게 정의가 함께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열린 마음과 선의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함께 할 때 평화의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미국에서 트럼프-펜스 행정부 아래 4년간 입증해 왔습니다. 우리 행정부 아래 미국과 한국의 동맹과 아태 지

역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습니다. 공동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통의 적에 대항했으며 선의로 협력하여 적대국을 우방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의를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역사적 동맹관계를 강화시키고 무역 관계를 개선시키며 미국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지역 내 동맹국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행정부가 취임했을 때 당시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까지 발사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미국을 대표하여 참석했을 때 혹은 서해 수호관에서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같은 해에 평화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면담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적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북한의 핵실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약함은 악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사일 실험과 도발의 복귀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행동도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은 강하게 함께 단결하여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올림픽의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자신들의 인권문제나 무역마찰, 홍콩과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행하는 군사작전에 관심을 탄 곳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이 배치되어 있고 중국은 러시아가 대만에서의 중국을 지지하는 것처럼 러시아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깊어지고 있는 관계는 자유세계에서 도전 과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변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향한 국가들은 함께 단결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과 민주주의적 원칙, 그리고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한반도 내의 최종적이며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현 미국 정권이 북한의 새로운 호전적인 공격,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탱크, 대만해협으로의 중국 전투기의 도래에 직면하더라도 강력하게 맞서 우리가 이룩한 진보를 거

듭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적과 아군 모두에게 미국국민들은 항상 자유를 위해 일어설 것임을 저는 단언합니다. 미국은 언제나 자유의 최대 옹호자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항상 대한민국, 일본 및 모든 동맹국과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의 굉장히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진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문화 예술 그리고 상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여와 공헌을 해왔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적대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 항구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유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안전을 위해 신념을 갖고 함께 단결한다면 미국과 한국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 세상은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알아냈을 때는 항상 최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월드서밋 2022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와 의견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일을 해 주시고 계속 이끌어 주시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그렇듯이 선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향후 수확을 하리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평화를 향한 노력을 한다면 분명 성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펜스는 미국의 제48대 부통령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역임했습니다. 이 글은 2022년 2월 13일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서밋' 및 '100만 구국구세 희망전진대회'에서 공영, 정치부분을 대표하여 기조연설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국 국무장관

오늘 함께 오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오늘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은 뜻을 갖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서로를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 세계가 함께 공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와 미국 간 국경의 교통차단으로 오고가지 못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그로 인해 교육도 못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파산하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년 동안 우리의 삶이 이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10월,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해 천주평화연합이 주최하는 제1회 싱크탱크 2022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그 때 종교의 자유가 한반도 통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몇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인류가 맞이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총재님, 이러한 훌륭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성취를 했는지 상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서 호텔들이 경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트럭운전자들은 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했을 때 중국 공산당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시민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음에도 이탈리아 등 전 세계로 향하는 것을 막지 않고 전 세계로 간염을 퍼트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서로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보도 결코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보건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요? 권력에 대한 강력한 욕망으로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폄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세계를 바라는 사람들이 넘어야 하는 장벽이 바로 이러한 정권, 그리고 정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중국 지도자들은 과거 마오쩌둥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들은 자유



를 완전히 짓밟기 위해 고안된 억압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러한 권력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비록 중국 공산당이 올림픽 팡파르와 축하 행사를 통하여 이를 희석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펼쳐진 종교인들에 대한 충격적인 박해 활동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산정권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신장에 집단학살 의도로 세운 강제수용소를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파룬궁 수련자들과 티베트 불교 신자들에 대한 그들의 잔인한 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부모들을 상대로 정보원이 될 아이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널리 공개 보도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이 신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의미를 찾는 행동이라거나, 국가보다 개인의 삶에 더 큰 가치를 갖는 생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직 당만이 인민이 충성하고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앙에 대한 억압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닿으시며,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정부든 그 연결을 막으려고 드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달라이 라마의 모든 가르침과 이미지를 지워버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티베트인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평화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자 했지만 결국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신앙은 폭력으로 억제될 수 없습니다.

베이징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짓밟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간의 어떤 계략도 신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이 했던 것처럼 신앙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세 명의 용감한 미국인들을 석방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가라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내가 김 위원장과 만나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하기를 지시하였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반복하여 전달했습니다. 김동철, 김학송, 토니킴은 당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분들과 함께 집으로 돌

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주로에서 가족들과 재회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이 국경을 넘어 침략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침략들이 바로 이곳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계속 눈감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 되었으며, 약 250개의 새로운 핵미사일 사일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입힌 전염병으로 이어진 우한에서의 발병한 질병을 은폐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됩니다.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어지럽히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국의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화를 어지럽히고, 주권을 침해하며, 민간인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억류되었습니다. 군사정권의 만행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웃 나라들의 주권을 계속해서 침해하고 위협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문제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히말라야 국경에서는 중국 군의 도발로 20여명의 인도군이 사망했으며, 태평양 연안의 섬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공격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실정입니다.

투키디데스의 말인 “강자는 마음대로 하고 약자는 그저 당할 뿐”을 생각하면, 이는 권위주의 정권이 세상으로 더욱 발 내밀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주는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외교와 대화가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UPF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접근이 훌륭한 외교적 자산이라는 것을 국무장관 시절부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부당하게 구금된 세 명의 사람들의 석방을 협상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김 위원장과 마주하고 앉아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석방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았다면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힘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역사상 처음 있었던 미국 대통령과 북한 권력자의 만남을 통하여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협상을 통하여 또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모라토리엄(실험유예)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든 한민족의 평화와 안보,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라토리엄은 한민족의 통일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미루어 볼 때, 누군가와 악수를 한 후에 대량 살상 무기를 발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장관으로서의 경험으로부터 저는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와 뉴스타트 조약을 연장했습니다. 한편 그들은 중국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늘릴 수 없어야 합니다. 미국과 핵을 동등하게 가진 중국이 자유 국가들을 강압하기 위해 힘을 행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행인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 중국과 워싱턴의 지도자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권력들이 다른 이들의 말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압박전을 펼친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는 같은 이유로 이란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억지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이 테헤란 정권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서 저와

함께 돌아온 세 명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운 시기에도 그들은 언젠가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내린 것은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와 있었습니다. 드라마와도 같은 상황 속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내게 카드 하나를 슬쩍 내밀었고 저는 그것을 재킷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늦게서야 집에 돌아왔고, 아내인 수잔과 함께 카드를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126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였습니다. 그 카드는 국무장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내 사무실에 계속 보관해두었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화해와 화합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주로에서의 그날 밤은 정말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가 평화로 하나가 될 때 한민족이 느낄 기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힘을 합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아래 한 가족”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2017~201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2018~2021년 제 70대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세계평화정상연합 유럽 지도자 기조연설

일리르 메타 알바니아 대통령

천주평화연합 창설자 이신 한학자 총재님과 평화서밋 공동조직위원장이신 샴데크 훈센 캄보디아왕국 총리,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도 심심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가 모든 국가와 모든 세대의 초석이 된다면, 38선은 분단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서밋을 개최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한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가 우세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리르 메타는 2017년부터 알바니아의 대통령이다.

로마노 프로디 제10대 유럽연합집행위원장

무엇보다 UPF의 창설자 되시는 한학자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은 훈센 총리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고 인권을 위해 앞장서며 역사의식을 갖고 훌륭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윈윈 과정입니다. 한반도 통일로 그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무역 증가, GDP 상승, 부의 증대, 과학적 진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만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의 공통된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강한 연결고리가 통일의 전제조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의 전염병은 결국 끝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노 프로디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탈리아의 총리를 지냈다.

도미니크 데 빌팽 167대 프랑스 총리

지금 전 세계는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막대한 변화를 겪는 가운데 거대한 불확실성과 긴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에 이어 2018년 극적인 화해정책까지 이어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 제재와 외교가 결합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제재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입증되었고, 북한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은 중간 선거를 준비 중이며, 결정적인 20차 중국 당 대회가 연말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는 평화로 가는 모범적 통로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전략은 국민과 정권 모두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 문화,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도미니크 데 빌팽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프랑스의 총리를 지냈다.

세계평화정상연합 나이지리아 지도자 기조연설

무하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현직 대통령

금번의 월드서밋 2022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내외 귀빈, 신사 숙녀 여러분, “아시아와 전 세계가 동참하는 다자간 평화축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월드서밋 2022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삼테크 훈센 캄보디아 수상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주평화연합을 창립하시고 지속 가능하며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한학자 총재님과 천주평화연합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바쁘신 시간을 내어 월드서밋 2022에 참석해 주신 세계 지도자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월드서밋 2022는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 문제 해결과 세계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한반도는 수십 년 동안 분쟁의 화약고였으며, 갈등을 오랜 시간을 끌어온 만큼,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모여 마땅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반도의 역사, 지정학적인 관계, 그리고 냉전 시대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분단된 유일한 국가라는 면에서 특수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심지어 세

계 평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남북한 정부 및 국민 간 상호 이해와 평화를 향한 결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교적 차원에서 양국과 국교를 이어왔습니다. 무역 및 상업, 교육, 문화 및 기술 교류 등 여러 차원에서 남북한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에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나이지리아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반군과의 분쟁에 휘말렸던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을 위한 종합적인 평화 구축 계획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나이지리아 보안군이 나이지리아가 직면한 현재의 안보 문제에 현대의 교전 원칙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우리는 나이지리아 젊은이들에게 평화 구축 및 분쟁 관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육군 사관학교와 공군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운동 지원 및 창업 프로젝트 등 여러 경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지역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펼쳐지는 모든 평화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강력히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입니

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들과 협력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천주평화연합이 싱크탱크 2022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환영받을 만한 일입니다. 지역적인 차원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천주평화연합과 같이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나아가는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호 협력과 평화로운 공생을 우선순위로 여긴다면 인류의 발전과 번영은 지연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원리원칙에 기반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는 데 동참합니다. 이번 월드서밋 2022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력 조나단 제14대 나이지리아 대통령

친애하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님, 지금은 문선명 총재님께서 일생동안 강력히 추구하셨던 ‘평화, 화해, 조화로운 공존’의 비전을 되새겨 볼 때입니다. 저는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한반도와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국내 및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재통일로 전 세계의 치유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문선명 총재님의 비전을 되새기고 우리 세계에 평화와 화합을 가져올 정책, 프로그램, 구상을 도모합니다. 전 세계가 한학자 총재님과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World Summit 2022 서울 선언

평화와 번영이 충만한 신통일한국

월드서밋 2022에 참석한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 종단장, 국회의원, 학술인, 경제인, 언론인, 예술인, 지역사회 지도자 등 우리는:

-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협정으로 일단락됨으로써 하나의 역사, 문화, 언어를 가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케 했음을 명확히 하며;
- 이 비극적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남북한 사이에 극심한 고통과 불신의 유산을 남겼음을 인정하며;
- 한반도 평화통일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 요소임을 믿으며;
- 천주평화연합 공동 설립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수십 년간의 헌신과 그 업적들에 깊은 인정과 경의를 표하며;
- 월드서밋, 희망전진대회, 국제지도자회의, 싱크탱크 2022 포럼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천주평화연합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와 화해, 상호 번영에 대한 그 기여를 인정하며;
- 세계평화정상연합(ISCP),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세계평화종교인연합(IAPD), 세계평화언론연합(IMAP), 세계평화경제인연합(IAED), 세계평화학술인연합(IAAP), 세계평화예술인연합(IAACP) 등 주요 기관을 통한 평화에 대한 천주평화연합의 협력적이고 다분 야적 접근법의 가치를 인정하며;
- 천주평화연합의 월드서밋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안정, 상호번영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 천주평화연합 한학자 공동 설립자와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삼데크 테초 훈센 캄보디아 왕국 수상 겸 2022 선학평화상 수상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뛰어난 업적을 높이 인정하며;
- 메콩 지역의 평화와 번영, 진보와 ASEAN 발전에 대한 삼데크 테초 훈센 수상의 헌신과 공헌을 인정하며;
- 월드서밋 2022, 초종교 서밋, ISCP 세계총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구국구세기도회 등 그 무한하고도 뛰어난 인류적 가치에 경의를 표한다.

이에 본 행사에 참석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 군사적 대립을 막고 평화, 안정, 예측가능성을 유지 및 증진하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향한 상호이해와 신뢰 증대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것을 남북한과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 남북한의 공동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서로의 안보이익과 관심사에 대해 상호존중과 인정으로 건설적 대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 한반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신뢰구축 방안과 프로그램, 예방 외교를 추진한다;

4. 한민족의 이익에 기여하는 우애정신을 바탕으로 건설적 대화와 협의를 위한 제안과 플랫폼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길을 닦는다;
5. 문화 회랑 및 관광인프라 개발, 비무장지대(DMZ)내 비군사인력인 ‘평화지킴이’ 배치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평화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6. 북한 및 그 외 지역의 관광, 스포츠, 문화, 교육 분야 협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관련 당사자들을 독려한다;
7. 메콩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메콩지역 및 그 외 지역 식량안보 및 공중보건 협력 강화를 위한 다분야 개발의 프레임 구축을 추진한다;
8. 남북한 국민들이 특히 정치, 경제, 문화, 인도주의, 의료, 교육, 사회(청소년 및 스포츠), 인프라 분야에서 두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미개발 잠재력의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9.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연계 및 디지털 창조산업에 대한 대자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한다;
10. 전쟁 무관용 원칙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과 새로운 화해문화의 진전을 위해 모두가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한다;
11. 남북을 잇는 신뢰 가교역할을 위해 국민들간 유대, 문화자원, 연계성을 활용하고 촉진함으로써 “하나의 영토, 하나의 국민, 하나의 문화”의 프레임 아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트랙 1.5 외교와 트랙 2 대화 그리고 소프트파워 접근법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12. 지역통합, 연계 및 평화의 매개체로서 “한일해저터널”건설을 지원한다;
13. G20, ASEAN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더불어 기타 주요 경제 이해관계자들과의 남북한 공동 벤처 프로젝트 가능성을 모색한다;
14. 메콩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MAPI)를 통해 2019 프놈펜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연합(APU)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5. 평화와 번영(M4P2)을 위한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신뢰, 상호이익의 원칙과 유엔헌장 및 국제법에 의거한 국제질서 증진을 재확인한다;
16. 한반도 및 그 밖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진전에 기여하기 위해 채택될 수 있는 평화사업 및 기타 제안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싱크탱크 2022, UPF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파트너십 위원회를 구성한다.

2022년 2월 13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월드서밋 2022에서
본 서울 선언을 결의하여 채택한다.



WORLD SUMMIT FOR PEACE 2022

World Summit for Peace 2022



KOREAN PENINSULA SUMMIT FOR PEACE

한반도 평화 서밋

2022 WORLD

SUMMI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